

Sex Education in Medical Aspects

大韓家族計劃協會 副會長

朴 機 夏

目 次

緒 論

- (A) 思春期의 性生理와 精通現象
- (B) 性加速化現象
- (C) 性病驕勢
- (D) 性行動規範의 變化

結 論

緒 論

性教育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청소년의 性自由思想의 潮流는 급속도로 전파되어 이들의 性病모랄은 기성세대와는 격차 있는 사고로 現實化되어가고 사회의 理解가 없는 속에서 社會惡을 조성하는 실정에 있어 性教育의 必要性은 시급을 요하고 있다.

思春期 이후 제2차성장이 完熟되고 부터 性의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라 하겠으나 精通現象 이후 결혼까지의 긴 청소년기간에 일어나는 왕성한 性의 生理를 조절 억제하는 것은 개인의 理性과 性人格 그리고 教育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성인격을 위한 기초적인 가정교육과 情緒教育은 必然的이라 하겠으나 性의 生物學的 醫學的 면에서의 무지가 초래하는 불행한 결과는 社會惡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學校教育의 총점은 性道德 문제와 더불어 의학적 분야의 지식이供給 되므로써 성을 다스리는 智慧를 배우고 성으로 인한 여러 피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性교육은 系統的 이라기 보다는複合

의인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生物學的 문제만으로 이 교육이 완벽할 수는 없고 道德과 倫理속에서 性人格을 올바르게 確立해야 하기 때문에 心理學 社會學, 精神科學, 教育學 등 여러 분야가 복합됨으로 완전한 교육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性自由의 사조는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먼저 전염병처럼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조 500년동안 儒敎속에서 節介를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겨온 우리의 사회였지만 이 파탄이 파괴된 것도 이미 오래되었고 性行動規範의 變化는 우리 사회에도 깊숙이 물들고 있다.

렌마크의 「프레미스트랄」교수는 性자유의 대홍수가 이미 형성되어 흘러가고 있는潮流를 억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해없는 조류를 위해서 生物學的 道德學的 教育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性病蔓延을 걱정하며 원치 않는 妊娠을 하여 私生兒를 가지거나 未婚母가 될까봐 不安 속에서 떨고 있다고 지적하고 思春期 아이들에게는 性知識에서 隔離함으로써 性에 피해를 막을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큰 아이들에 대해서는 性病 妊娠등 性에 대한 恐怖感을 심어 주는 것을 유일한 해결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도 공감이가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性行動規範의 變化가 청소년간에 깊숙히 물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性education의 基礎가 전연 기회되어 있지 않다. 文教政策이나 家庭敎育에 있어서도 기성세대는 자기 주관만을 고집하고 청소년의 思考傾向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라기 보다는 教育計劃을 두려워하고 있다. 교육도 對話도 없는 속에서 思春期의 生理變動은 知識

을渴望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렇기 때문에 性教育의 필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思春期 이후에 生理的 心理的 변화를 올바르게 지도하여 性人格 형성의 基礎를 확립한다는 것은 성인 후 人間形成과 연결되는 중요한 情緒教育일 것이다. 精通現象 이후에 생리적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智慧를 배우고 妊娠에 짜르는 의학적 사회적 문제 성병으로 인한 心理的 生理的 문제를 배움으로써 성으로 인한 피해는 억제될 것이다. 아울러 도덕적인 면에서의 教育도 변행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성인격 형성은 사춘기 이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프로이드가 지적한 바와 같이 口腔期, 肛門期, 生殖器期 등 출생후 6~7세 사이에 性人格의 基礎는 형성된다고 하니 幼年期에 어머니의 愛情과 教育도 性教育의 基本이 된다고 하겠다. 그후 自我가 完成되어 훌륭한 人間形成이 될때까지의 학교교육의 필요성은 크게 강조되어야 하며 系統的인 文教政策수립은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다.

여기 주어진 연재하에 性education과 관련된 醫學的 分野에서의 몇가지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본다.

(A) 思春期의 性生理와 精通現象

思春期 이후 테스트스테론의 分泌가 증가됨에 따라 异性을憧憬하는 心理的 生理的 衝動은 점차로 높아져가며 따라서 睾丸에서 生成된 精子가 精囊에 저장 충만되면 陰部神經 속에 있는 求心性神經纖維를 통해서 脊髓腰部에 있는 射精의 中樞를 흥분하므로써 精通現象은 이루어지게 된다.

思春期 이후 精囊에서의 反射的 排出은 처음에는 夢精의 形태로써 이루어지고 그후 이 현상은 周期的으로 반복되게 된다. 이러한 性快感은 차츰 自慰行為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수면중에 자신의 의식없이 精液이 배출되는 상태를 夜間遺精이라하며 慾精의 꿈과같이 快感을 동반하면서 精液을 배출하는 상태 즉 夢精은 健康한 남자의 경우에서는 禁慾을 하고 있을 때 1개월에 3~4회 정도의 夢精이 일어나는 것은 正常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빈도가 너무 많

으면 심한때에는 매일 또는 하루밤에 몇번씩 일어나는 것은 痘의이며 그原因으로서는 精神的 過勞 神經衰弱, 放射過度 심한 自慰行為, 性交中絕 또는 장기의 禁慾등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으며 局所的인 조건으로서는 精丘의 充血, 後部尿道炎, 慢性前立腺炎 直腸의 疾病 脊髓의 疾病 등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痘의 素因이 없는 正常의인 生理狀態에서도 性刺戟 荷蒙의 分泌의 영향을 받아 射精이 週期的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生理現象이라 하겠다.

自慰行為의 快感을 맛보고난 후 人爲의인 배출은 思春期 慾情의 解消法이 되고 있다. 自慰行為는 15세~20세에서 약 80%가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킨제이 해포트에 따르면 모든 男性의 97%는 20세에서 自慰行為를 하고 있으며 女性的 경우 20세에서 30%가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自慰行為는 人類의 歷史와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民族의 차이없이 행해지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自慰行為에 대해서는 有害論과 無害論이 대치하여贊成과 反對의 두 理論이 있다.

매스매디아나 전문서적을 통해서 무조건 無害論 贊成論을 발표하는 醫師, 心理學者 教育學者들이 있으나 이것은 思春期의 生理를 무모하게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教育的 見地에서 삼가해야 할 것이다.

贊成의 理由로서는 즐거운 快感의 맛을 장소와 시간에 구애없이 간단하게 맛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문제는 단독으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타인을 상하지 않으며 妊娠 기타 社會惡을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는 점이고 매음부등에 접촉하는 機會와 意慾을 억제하게 되며 따라서 타인에서의 感染機會도 없기 때문에 性病에 感染될 염려도 없다는 것이 贊成論者の 利點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反對論도 많으며 특히 人間으로서 男性인 이상 어느 정도는 불가불한것 이지만 억제해야 할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男性의 경우 禁慾으

로서 射情을 억제하였을 때 夢精이라는 형태로 自然排出되기 때문에 人爲的排出은 生理學의 面에서 絶對的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自慰行爲는 習慣的으로 思春期 이후에 누구나 경험하는 행위이지만 수치감과 억제해야 하겠다는 性道德感 등이 짐재한 속에 번뇌하면서 生理的慾求를 解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心理的打擊이 뒤따르고 罪意識이 생기기 쉬우며 또 이것은 精神的으로 不健全한 상태로 이끌고 가기 쉽다.

宗教에 의해서 이것은 비난 되어왔고 또 이러한 사실은 罪意識과 싸워야 하는 心理的打擊 속에서 이런 행동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性人格形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또 비밀리에 남의 눈을 피해야 한다는 道德의 心理作用은 견전한 精神狀態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自慰行爲가 유일한 성의 排出口로서 습관이 계속된다는 것은 有害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心理的 精神醫學的 면을 떠나서 이것에 因襲化되면 여러 가지 不作用이 초래될 수 있고 더욱 심한 경우 變態의 自慰에 빠져 여러 가지 後遺症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變態의 自慰行爲는 기어코 수출에까지 연결되는 예는 흔히 보는 일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男兒에서 제거한 膀胱異物에는 긴 銅線과 풀잎 등이 있었으며 女兒에서는 웃끈 머리핀등의膀胱異物들이 變態의 自慰行爲에 의해서膀胱내 삽입된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過度한 自慰行爲는 病理學의 慢性前立腺炎, 後部尿道炎, 慢性精丘炎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神經衰弱, 早漏症, 勃起不能症등의 後遺症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자위행위가 해롭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이런 것이 과다하여 고민하는 젊은층도 많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無害論만 주장하여 醫學의 知識이 없는 젊은이들에 장려하는 것 같은 教育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여러 가지 精神醫學的 泌尿器科의 後遺症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최대한으로 경제할 수 있는 指導와 對策이 바람직하다.

(B) 性 加速化 現象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發育 加速化現象이 현저하게 눈에 띠게 되었고 또 이에 관한統計的 보고도 2~3년 思春期가 빨라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發育 加速化現象은 일반적으로 個人所得이 높아짐에 따라 營養狀態가改善된 것을 主原因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외에 生活樣式의 變화 文明의 발달에 따른 刺戟의 增加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있다. 發育加速化現象에 性加速化現象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發育 加速化現象은 1940년대부터 독일에서 처음 지적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6세 남자에서 1940년과 1970년의 身長은 5cm 體重은 5Kg 胸圍은 4cm 정도의 平均值가 커져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性的成熟의 표시인 여자의 初潮年齡도 2~3년이 일어졌고 남자의 變聲 精通現象과 더불어 性非行도 年少層에서 증가되고 있다.

이와같이 性的成熟의 加速化現象은 년소층에 妊娠이 증가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생각하는 소년 소녀라는 종래의 개념으로서는 처리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틴-에이저들의婚前性交가 늘고 있는 것은 구미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최근 아세아제국과 우리나라에서도 주위를 환기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17세에 거의가 性體驗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런 性加速化現象은 취득에서도 거의 비슷하며 날이 갈수록 템포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東洋倫理와 儒教의 道德觀이 많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서구와는 다르겠지만 차차 서구와 같은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울대보건대학원의婚前性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남자에서는 66% 여자에서는 33%가 性經驗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教育程度別로婚前性交率은 국졸이 98%로 가장 높

고 고졸이 84% 대졸이 67%로 學力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의 女高生에 대한 조사를 보면 45%가량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한편 未婚母에 관한 統計는 14~19세의 연령층이 전체 未婚母의 16%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앞서 여고생의 조사를 보면 「교제후 결혼까지 하겠다」는 의견은 17.5%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結婚과 관계없이라는 대답을 하고 있어 바뀌어진 젊은 세대의 性倫理觀은 주시되는 바이다.

이런 性加速化現象은 生理的으로 早熟化現象이 일어나 연령이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性刺戟의 범람, 性輕視풍조등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틴—에이저들의 性經驗은 이들에게 精神的, 肉體的 不作用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여고생의 조사에 따르면 性經驗者의 96%가 性經驗後에 心理的인 衝擊, 罪惡感을 느꼈다고 나타나 있다.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는 로—틴에서의 性交行爲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의 임산부가 증가됨에 따라 醫學的 社會學的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성에 대한 개념과 폐단을 바꾸어 놓고 있다.

1977년 保社部 勞動廳의 福祉事業報告書에 의하면 전국 산업장에서 일하는 未婚女性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한 바에 의하면 性經驗이 있다고 답한 것이 47% 응답하지 않는 것이 20%이며 무경험은 불과 33%에 불과하다. 이것은 韓國社會의 女性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性에 대한 概念을 잘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으며 性行動規範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1977년 9월 미국 버지니아에서 개최되었던 青少年 妊娠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10대의 妊娠에 관한 세미나보고가 있었는데 39개국에서 발표된 論文의 내용으로 國家와 地域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틴—에이저의 妊娠率은 2%에서 23%로 보고되었다.

미국에서 14세이하 妊娠率은 전체 妊娠의 1%이며 15~17세가 8.8%, 18~19세가 14.5%로 전 妊產婦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이 19% 시든이 23.1%등으로 10대의 妊娠率이 점차 높아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의 結論은 18세 이하의 產母는 不作用이 많으며 母子의 死亡率을 높인다는 이유로서 結婚과는 관계없이 抑制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未婚女의 妊娠은 M. R. ktt나 人工流產을 必然的으로 받아야하며 이것은 不作用의 併發率이 높으며 死亡率이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학자에 의해서 지적되어 있으며 또한 年少者의 妊娠이 生理學的 精神醫學的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經濟的 입장에서도 어머니 자격이 미비되므로 억제되어야 하며 이것이 分娩에 까지의 결과가 되었을 때 여러가지 社會問題를 야기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私生兒를 가진 未婚母의 수는 증가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保社部 入養機關에 등록된 蕎兒의 수만으로도 1년에 4000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年少者의 私生兒 分娩은 嬰兒絞殺이라는 社會惡과 연결되기 때문에 醫學的인 分野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學的 견지에서도 年少者의 妊娠은 사전에 방지 되어야 할 것이다.

(C) 性病 趨勢

WHO가 경고한 바와같이 性病의 發生빈도는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梅毒의 경우 그 發生增加率은 해마다 150%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發生年齡도 壯年層에 많던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青少年層에 그 수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時代에 따른 性行動規範의 변화와 일치하여 年少層에 性病의 韻격한 증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되는 바다. 年少層 患者에서의 問題點은 經濟的인 문제와 着恥感과 罪意識 때문에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정확한 診斷과 治療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은 慢性化 혹은 併發症이나 後遺症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性病의 정확한 統計는 과학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아

抗生素를 약국에서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統計的 發生率은 正確性을 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先進國에서도 정확한 發生率을 통계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생각되나 종합 병원을 중심으로 한 集計報告에 따르면(1971) 시들이 10만명에 514로 가장 높으며 렌마-크가 319 미국이 308 영국이 118 불란서가 30으로 보고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높은 發生率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의 性病 發生統計에서도 15세~19세의 梅毒患者가 1956년에는 10만명에 10.7이던 것이 1968년에는 19.3으로 증가되어 있고 淋疾은 415.7이던 것이 610.6으로 증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發生頻度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집계는 없으며 다만 외국인 상대의 職業女性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여 1975년 연세대학팀의 전국 조사에서 梅毒의 11.5%가 가장 최근의 보고이며 1968년 原州의 직업여성 조사에서 나타난 33.5%가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최근 產業發展과 더불어 都市集中化 現象의 부작용의 하나로 工團 勤勞者의 性病感染率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주목되고 있다. 工團 勤勞者의 梅毒感染에 대한 조사 보고에 의하면(염용태 1976) 729명에 남자를 상대로한 P공단과 U공단의 일제 검사에서 P공단의 경우 전체의 24%가 血清検査에서 陽性을 보였다고 하며 그중 梅毒으로 확증할 수 있는 것은 16.25%라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U工團과 비교 검토되어 있는데 U工團의 陽性率은 5.2%에 불과하다. 이것은 教育程度와 구분하여 低教育層에 性病患者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P工團은 고졸이상이 33.5%인데 비해서 U工團은 고졸이상이 67.4%이다. 教育水準이 낮을수록 性病의 發生率이 높은 것은 일반적인 統計報告와 일치된 결과라 하겠으며 第二次大戰時 미국 黑人 兵士들에게 발생된 梅毒은 世界的으로 이목을 끌었는데 그 당시 梅毒의 발생율은 전체 24.5%였다고 한다.

(D) 性行動規範의 變化

쉬든의 性教育에 대해서 소괄씨는 설명하기를

福社國家가 쉬든에 있어서의 性教育의 발전은 自由와 개인의 權利를 위하여 그 노력을 집중하였다. 選擇의 自由를 위해서는 選擇할 對象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避妊技術의 발달은 道德上의 規範에 새로이 곤란한 문제를 제기 하였는데 避妊은 性과 生殖의 分離를 可能하게 하였으며 人間의 文化生活속에서 女性이 아이를 낳는 것은 중요한 義務인데 이를 회피할 性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性教育위원회」까지 조직되어 性의 生理 및 性障礙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의 性行動에 관한 社會法的問題에 대해서 계몽교육하고 있다고 하였다.

性은 生殖과 愛情과 快樂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삼각형속에 3대要素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文化的 고도발전과 더불어 醫學의 發達避妊法의 완벽등은 愛情과 快樂만으로 生殖을 도피하려는 일부 서구의 경향은 自然原則을 역행하는 思潮로 흐르고 있다.

世界的으로 가장 性education이 앞서 있으며 高度로 專門化되어 있는 쉬든에서는 1945년에 이미 教師用 教科書가 發刊되어 부분적으로 性education이 시행되어 왔으며 1956년에는 국민학교 教科課程에 性education이 義務化되었다. 이들은 性education을 통해서 인간의 對人關係를 강조하고 있으며 性education委員會의 명칭도 USSU (The State Commission on Aspects of Sex and Personal Relationships in Teaching and Public Information)라고 하여 對人關係와 人間尊重에 대한 교육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 委員會의 학생들에 대한 性education의 目的要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性은 異性과의 友愛속에서 快樂과 즐거움의 源泉으로서 體驗하는데 責任感과 因果關係를 특징으로 하는 對人關係에 대처하기 위하여 解剖學의 生理學의 精神的 倫理的 社會的 知識을 배우게 하며
2. 性生活의 다양한 現象들 즉 性交自慰 性機能障礙 受胎調節法 妊娠의 人工中絕法 다양한 性的衝動 性病등을 배우게 하고
3. 感情, 人間關係의 價值, 道德基準 社會條

件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여러가지 의문점 등을 배우게 할 것이다.

4. 따라서 학생들은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成長과 性經驗의 여러 단계에서 人間關係에 適應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얻어 人格形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같이 이들은 性을 생각하는 思考와 概念이 우리와는 다르며 성을 陰陽합려는 우리의 개념과는 달리 노골적으로 성을 表現化하고 있어 教育觀念에 큰 격차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중학교 교육부터 性生活을 生殖보다는 同居同樂 快樂 기쁨을 얻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된다고 노골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또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너무 일찍 結婚하고 忠告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婚前關係를 가지라고 충고하는 것이 더 좋다고 委員會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 미국의 론키산백가족체육협회가 발간하는 「이제 당신은 性의 불쌍한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간행물에서 少年 少女들을 위한 性敎育을 다음과 같은 표어로서 계몽하고 있다. 性에 대해 바보가 되지 말라 당신은 성에 대해 어떤 생각하느냐 성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느냐 성을 원한다면 누구와 함께를 정한후에 성에 대해 정직한 태도를 취하라 그리고 당신의 대답이

「예」이면 적절한 避妊을 하여라】

이와같이 구미의 성교육은 생리적인 성행위를 억제할 수 없다는 現實下에서 表現을 陽性化하고 對人關係와 性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같이 性行動 規範의 변화는 人種과 宗教에 불문하고 겹차로 벤져 나가고 있다.

性行動 規範의 變化가 社會一角을 부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소년 소녀들의 性行動과 性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성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性敎育의 필요성을 절망하면서 醫學的인 분야에 있어서의 性敎育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惠春期 이후에 性生理와 性加速化現象 그리고 未婚女의 妊娠으로 인한 불행한 社會惡 또 性交로 인해서 慢延될 수 있는 性病趨勢등 性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醫學的인 피해 문제를 現實과 統計學的 面에서 지적하였다. 세계적인 性自由思潮의 흐름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도 性行動規範의 변화가 차츰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社會倫理는 겹차로 侵蝕 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우리사회의 性概念도 구미의 현재의 性概念과 같은 상태에 도달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젊은이나 미래를 위하여 출중한 性敎育을 위한 대책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